

영광 해룡중 학생 동아리, 바자회 수익금 기부



영광에 있는 해룡중학교 '기가찬 미니교실' 학생 동아리는 22일 동아리 학생들이 손수 만든 물건을 판매한 바자회 수익금 31만 6000원을 전달했다. <사진>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해룡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기부한 물품들과, 특히 '기가찬 미니교실' 동아리 학생들이 매일 점심시간마다 만든 수세미와 양말목 냄비반침대를 판매한 수익금

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남도내 취약계층의 의료비 및 생계비로 사용 될 예정이다. 김목련 해룡중학교 동아리 담당 교사는 “이번 바자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 되었다”며 “학생들과 함께 기부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교통공사, 노사민 공동 ‘김장 나눔’ 행사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광주시 남구 김치타운에서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과 함께 노사민 공동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연말연시 주변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양 기관 임직원 20여 명은 직접 담근 김치 1300kg(130여박스)를 광주시 소재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노인 복지센터 등 7개 시설에 전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전파했다. 문석환 사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김치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등산 의재 문화유적 복원 사업

‘사유의 방’ 설계 최욱 건축가 참여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을 설계한 최욱(사진) 건축가가 의재 허백련 선생 문화유적 복원에 참여한다. 광주시 동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무등산 의재 문화유적 복원 사업’에 최욱 건축가가 설계자로 참여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동구는 무등산과 의재 선생이 지닌 상징성을 고려해 국내 대표 건축가를 초청하는 지명 설계공모를 처음 도입했다. 최욱 건축가는 북촌 ‘설화수’의 집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장소의 기억과 정체성을 섬세하게 풀어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관람객이 머무르며 사유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이기홍 동아일보 대기자

서재필 언론인상 수상



제8회 서재필 언론인상 수상자로 이기홍 동아일보 대기자(사진·60)가 선정됐다. 사단법인 송재(松齋) 서재필(徐載弼) 기념사업회(이사장 김중채)와 심헌 문화재단(이사장 박지영)은 21일 서재필 언론인상 수상자로 이 대기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서재필 선생 탄생 162주년 일인 2026년 1월 7일 오전 11시 광주 빛고를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수상자인 이 대기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서재필 언론인상 선정위원회는 이 대기자가 1990년 동아일보 수습기자로 입사한 후 35년간 정통 언론인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특정 세력과 주장이 세상을 뒤엎을 때 이에 휩쓸리지 않고 시사비평을 가리는 보도를 해온 점을 선정이유로 들었다. 선정위는 이 대기자가 논설실장 시절부터 7년간 연재해온 ‘이기홍칼럼’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이념편향과 이중성을 비판한 점,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 김건희 여사 문제의 심각성을 정권 초기부터 날카롭게 제기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그룹홈 청소년 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8일 최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소재 그룹홈 청소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전자제품 구입비 400만원을 후원했다. <사진> 이번에 후원받은 그룹홈은 지난 11월 화재 사고로 생활공간과 전자제품 등이 소실되어 거주 중이던 청소년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자제품이 부족해 정상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후원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자제품을 지원하며, 화재로 상실감을 겪은 청소년들이 다시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승원 기자 swseo@



이영희 건보공단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씨젠의료재단, 사랑의열매 ‘착한일터’ 가입



(재)씨젠의료재단광주호남검사센터가 최근 광주사랑의열매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사진> 센터는 ‘착한일터’ 가입 현판 수여식을 개최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매월 정기기부를 약속했다. ‘착한일터’는 기업·기관 구성원 5인 이상이 월 5000원 이상을 기부해 지역 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참여형 기부 모델 형식이다. 정기기부로 조성된 성금은 광주 지역 저소득층 가정, 독거어르신,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등 필요한 분야에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첫 번째 남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KBS 뉴스 930	30 친밀한 리플리(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	10 동행(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15 뽀빠뽀 좋아 좋아 스페셜 45 베베핀(재)	00 최선규의 이제는 지방시대(재)
[12]	00 KBS 뉴스 12	50 한국인의 밥상(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히트레이서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한글용사 아이야(재) 55 2시 뉴스 외전	00 투데이(재)
[2]	00 KBS 뉴스 10 헤드림 컴퍼니(재)			00 뉴스브리핑
[3]	00 전국을 달린다 1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린다의 신기한 여행 2(재)	55 기분 좋은 날(재)	00 조동아리 호수따라 하우고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어린이 동물티비(재)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세 개의 시선(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00 라이즈맨 2 15 그라운드크루 토토 30 스튜디오 K 스페셜	10 트로트 클라스 3	00 SBS 오뉴스 30 꾸러기 탐구생활(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00 생방송 투데이 5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KBS특집 다큐	50 친밀한 리플리	05 첫 번째 남자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마리와 별난 아빠들	30 셀럽병사의 비밀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45 스모킹 건	00 극한84 스페셜	00 틈만나면
[10]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45 아이 러브 스포츠	20 PD수첩	5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1]	30 영상앨범 산(재)	10 스튜디오 K	20 100분토론	
[12]	00 KBS네트워크특선 문화스케치(재) 50 생활의 발견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5 MBC 뉴스 25	15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45 도시락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40 타타와 쿠마 오늘도 대모험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50 자이언트 팽TV(재)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8:30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국아의 왕국 북유럽 꿈꾸는 노르딕 라이프>	12:10 귀한신 물	19:20 고향민국
07:00 슈퍼월드 슈퍼콤보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극한직업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30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겨울이 오는 길, 카자흐스탄 바다에서 마법의 땅으로, 악타우>
07:4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5:10 고향민국	21:35 한국기행
08:00 덩동댕 덩동댕	15:40 마사와 곰	<밀가루가 좋아서 2부 부산 골목의 맛>
08:20 지구 영웅 반개맨	15:55 블랙스	21:55 건축탐구 - 집
08:50 세상을 비집고 시즌3	16:10 덩동댕 덩동댕	22:45 다큐멘터리K
09:20 자이언트 팽TV	16:30 지구 영웅 반개맨(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서정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17:00 페퍼 피그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7:10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3일(음 11월 4일 丙寅) ☎010-9790-8237

 子	36년생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중극적인 결과는 같다. 48년생 실기된 것을 회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라. 60년생 여태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이로움이 있다. 72년생 진행하기 보다는 잠시 정지해 있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84년생 실제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96년생 행복이 넘쳐 흐르겠다. 행운의 숫자 : 07, 52	42년생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54년생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이가 생길 수도 있다. 66년생 허황된 일이나 빨리 포기할수록 유리하다. 78년생 모란 그릇에 동근 푸경을 덮으려는 격이다. 90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알라. 02년생 부수적인 일이 번거롭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73
 丑	37년생 만만하여 왔던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49년생 표면만 보아도 내용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61년생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갈수록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다. 73년생 김운이므로 기대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85년생 기발한 발상이 필요하다. 97년생 속사정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5, 84	43년생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 55년생 제의한다면 상대는 흔쾌히 응할 가능성이 높다. 67년생 어떠한 형국이 되든지 간에 시종일관 단일하게 대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79년생 인고의 국면 뒤에 성취의 기쁨을 만끽한다. 91년생 신변에 많은 변화가 보인다. 03년생 획일적이라면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22, 53
 寅	38년생 현혹되지 않도록 병정심을 유지하라. 50년생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를 주의하자. 62년생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대로만 행해야 하느니라. 74년생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수확할 채비를 하라. 86년생 부담감을 느낀다면 자체하는 것이 합당하다. 98년생 기묘한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으니 감안하고 들어가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0, 88	44년생 부드러움과 온화함으로 포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56년생 중요한 얘기를 우연히 타인으로부터 듣게 되리라. 68년생 당장 마음에 걸린다고 하여서 실행하지 말고 뒷감당할 일까지 염두에 두고 임하라. 80년생 쉽게 정답한다면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92년생 민첩한 순발력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04년생 매사가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 23, 59
 卯	39년생 대단히 부담스러워해 왔을지라도 막상 실행하고 보면 쉬울 것이다. 51년생 진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접하게 되리라. 63년생 받아들이는 것 못지않게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75년생 화를 자초할 수 있는 우는 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87년생 개털에 벼룩 끼듯 하겠다. 99년생 우회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26, 57	45년생 기존의 틀이 불편하다면 차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도 괜찮다. 57년생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괜찮은 결과가 보인다. 69년생 수용하는 것이 대국을 유지하는 길이다. 81년생 판세에 맞지 않는다면 부작유판 속출한다. 93년생 다 되어 가던 일이 반복해서 지연되는 입지이다. 05년생 과감하게 미련을 버려라. 행운의 숫자 : 41, 78
 辰	40년생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이 가장 무난하리라. 52년생 학수고대하면서 노심초사하게 되는 형상이다. 64년생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한다. 76년생 신임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된다. 88년생 타산적으려써 본보기가 되어 줄 것이다. 00년생 겉치는 일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8, 55	46년생 대단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중도에서 포기할지도 모른다. 58년생 물질적인 면은 양호하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이 따를 수 있다. 70년생 지극히 조그마한 차이이므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82년생 흥성이 지고 길성이 떠오르는 기세이다. 94년생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발생하리라. 06년생 망각한다면 실수로 이어진다. 행운의 숫자 : 30, 86
 巳	41년생 포용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리가 없으리라. 53년생 시초에 바로 잡아야 궁극에까지 수월할 것이다. 65년생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77년생 명분과 이해득실 앞에서 상당히 고민할 수다. 89년생 독창적인 안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01년생 잘 선택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6, 87	47년생 실패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느니라. 59년생 복이 흥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71년생 한 번 모순에 빠지면 연쇄적인 과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국상이다. 83년생 우연의 일치로 인해서 추진하는 일이 순조롭다. 95년생 구태여 남비를 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07년생 정후가 이상하니 현상을 유지하라. 행운의 숫자 : 09, 67